



■ 한국 16강 진출 경우의 수

스위스와 비기고 佛 1점차로 토고 잡으면 다득점 순

이거면 무조건 자력 진출, 설사 비겨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스위스가 19일 밤 G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토고를 2-0으로 제압해 조 1위로 올라섬으로써 전날 프랑스와 비겨 선두를 탈락한 아드보카트호는 조 2위로 떨어졌다.

현재로서는 상황이 낙관적이지도, 비관적이지도 않다. 최종전에서 승리를 통한 자력 진출의 길이 열려있는데다 설사 스위스와 비기더라도 프랑스-토고전 결과에 따라 여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스위스에 지더라도 행운의 16강행을 바라볼 여지는 남아있다.

한국의 16강 진출 가능성을 경우의 수로 따져본다.

◆스위스에 이길 경우=무조건 16강 진출이다. 아드보카트호는 2승1무(승점 7)가 돼 프랑스-토고전 결과와 관계없이 16강에 오른다. 게다가 당당히 조 1위를 차지한다.

한국은 조 1위를 확보하면 16강에서 H조 2위를 만난다.

20일 튀니지에 역전승을 거둬 16강행이 확정된 스페인이 조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때 2위는 남은 3개국 우크라이나, 튀니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싸움이다. 사우디를 4-0으로 대파하고 2위로 올라선 우크라이나가 유리하다.

◆스위스와 비길 경우=한국은 골득실이 +1이고, 스위스는 골득실이 +2다. 한국과 스위스가 어떤 스코어로 비기더라도 한국은 스위스에 골득실에서 한 골차로 뒤지게 된다. 이럴 경우에도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시간에 킬전에서 열리는 프랑스-토고전의 결과를 봐야 한다.

프랑스가 토고에 1골 차 승리를 거둘 경우 한국에 유리해진다. 한국이 스위스와 득점없이 비기고 프랑스가 토고를 1-0으로 이기면 한국과 프랑스는 골

득실이 +1로 같아진다. 그러나 한국은 득 3, 실 2로 다득점에서 득 2, 실 1이 되는 프랑스에 앞선다. 스위스가 조 1위, 한국이 2위로 16강에 오르고 프랑스는 탈락한다.

프랑스가 토고에 2-1로 이기면 한국과 프랑스는 골 득실과 다득점이 모두 같아진다. 그 다음 규정은 승자승이지만 한국과 프랑스는 1-1로 비겨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추첨을 통해 16강 진출 팀을 가리는 '운명의 장난'과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프랑스가 토고에 3-2로 승리하면 다득점에서 프랑스가 앞서 진출한다. 한국이 스위스와 1-1로 비기고 프랑스가 토고에 1골 차로 이기면 한국이 더 유

스위스와 비기고 佛 토고에 2골차 승리면 탈락

스위스에 지고 佛과 토고 비기면 조2위로 진출

리하다. 프랑스가 4-3으로 이길 경우에만 앞서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드보카트호로서는 스위스와 비기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골을 주고 받으며 비기는 게 유리하다.

한국이 스위스와 비기고 프랑스가 토고에 두 골 이상 차로 승리하면 프랑스가 골득실에서 앞서 한국은 떨어진다.

◆스위스에 질 경우=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다. 한국이 스위스에 지면 1승1무1패로 여전히 승점 4점이 된다. 스위스는 2승1무로 조 1위가 된다. 그러나 프랑스가 토고에 비기면 3무가 돼 한국보다 승점이 한 점 모자란다. 토고가 프랑스를 이길 경우에는 토고가 승점 3, 프랑스가 승점 2가 돼 역시 한국이 16강에 오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Score (e.g., 0-0, 1-0, 2-1, 3-2, 1-1, 2-2) and Status (e.g., '진출', '추첨', '탈락'). It details the various scenarios for Korea's advancement to the 16th round based on match results.

“스위스 프라이·바르네타 경계하라”

‘스위스 프라이와 바르네타를 조심하라’ 한국의 독일월드컵 G조 마지막 상대인 스위스 간판 골잡이 알렉산더 프라이(27·스타드 렌)와 트란클로 바르네타(21·레버쿠젠)가 주요 경계 대상으로 급부상했다.



〈바르네타〉

프라이, 돌파력·골 결정력 탁월

바르네타, 체력·위치선정 뛰어남

프라이는 전반 8분 위협적인 헤딩 슈트로 상대 골문을 위협하더니 마침내 전반 15분 왼쪽 측면에서 튀도비크 마방이 올린 크로스 골문 오른쪽에서 바르네타가 밀어주자 오른쪽 슈트로 골문을 갈랐다.

후반 13분에도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강력한 왼발 슈트를 날렸으나 수비벽에 막혔고 19분에는 후반 교체 투입된 하칸 아킨에게 기가 막힌 스투페스를 연결해 상대 수비수를 긴장시켰다.

독일월드컵 유럽 지역에선 10경기에서 팀 내 최다인 7골을 폭발시킨 프라이는 A매치 46경기에서 25골을 집어 넣은 스위스 대표팀의 주 득점원이다.

프라이와 함께 스위스의 공격을 주도한 바르네타도 이날 1골 1어시스트를 하며 팀의 완승을 이끌었다. 전반 프라이의 선제골을 도운 바르네타는 전.후반 90분을 뛰며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과시했고 감각적인 돌파, 위치선정으로 상대 팀 골문을 여러차례 위협했다.

A매치 14경기에서 두 골을 넣은 바르네타는 특히 후반 43분 기습적인 중거리포를 성공시켜 승리에 쾌거를 박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코트 디부아르와 평가전에서도 선제골을 터뜨렸던 바르네타는 스위스 FC 장크트 갈렌에서 뛰던 2004-2005년에 독일 하노버 96으로 임대돼 한 시즌 동안 활약한 바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G조 상대국 25시

쿤 감독 “한국전 반드시 이길 것”

쿤 감독은 19일 토고를 2-0으로 꺾은 뒤 공식 인터뷰에서 “한국 대표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국 역시 16강 진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쿤 감독은 “16강에 오르기 위해서 한국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토고전에서 많은 실수를 했지만 (한국전까지) 선수들의 기량이 더 나아질 거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토고 대표팀의 불화가 이날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잘라 말한 쿤 감독은 “토고 오토 피스터 감독을 잘 알고 있다. 토고도 오늘 이기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설명했다.

쿤 감독은 이어 “다니엘 기카스를 빼고 하칸 아킨

을 투입한 용병술’에 대해 “기카스가 엉덩이에 부상이 있어서 후반에 아킨을 투입했는데 결과적으로 유효했다”며 “아킨이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다. 내 기대대로 플레이를 했다”고 칭찬했다.

그는 특히 “경고에 있는 선수를 때문에 2-3명의 선수들을 기용하지 못했다”며 한국전을 대비해 토고전을 치렀음을 암시했다.

피스터 “프랑스전 벤치멤버 활용”

오토 피스터 토고 감독은 19일 밤(한국시간) 스위스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 뒤 “프랑스와 3차전에서는 아직 한 번도 뛰지 못한 4-5명에게 경험을 쌓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말 대로라면 주전보다는 후보들을 선발 및 교체

선수로 활용하겠다는 셈이다. 토고 대표팀에서 1, 2차전을 뛰지 못한 선수는 우로니미니 차그니투와 코조비 오빌랄레(이상 골키퍼), 에리크 아코토, 카미 구에테(이상 수비수), 아테칸이 울루파데, 아포 에라사(이상 미드필더) 등 6명이다.

한편 토고 대표팀 선수들이 24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릴에서 열린 프랑스와 G조 최종전을 앞두고 필승 각오를 밝혔다.

스위스와 2차전에서 0-2로 패해 16강행이 좌절된 토고 미드필더 셰리프 투레 마방은 독일월드컵 홈페이지와 인터뷰에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꼭 이길 원한다. 이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프랑스 대표팀 ‘꿀맛’ 휴식

한국에 막판 동점 골을 허용하면서 조 3위로 밀려

있는 프랑스 축구대표팀이 ‘꿀맛’ 같은 휴식을 가졌다.

20일 프랑스 스포츠전문 일간지 ‘레퀴프’에 따르면 19일 오전 라이프치히 켈트랄슈타디온에서 한국에 1-1로 비긴 프랑스는 경기 끝난 뒤 베이스캠프인 에르첸으로 돌아가 휴식에 들어갔다.

경기 다음날 훈련일정이 잡혀 있지 않았던 선수단은 늦잠을 자거나 숙소 인근을 산책하는 등 가족 또는 연인과 달콤한 한 때를 즐겼다. 도메네크 감독은 그러나 오후 12시30분 점심식사 때에는 23명 모두 숙소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지시, 최소한의 규율은 지키도록 했다.

일부 선수 가족들은 잠깐의 ‘조우’를 뒤로 한 채 오후 선수단을 떠났으며 일부는 숙소에서 스위스-토고 조별리그 2차전을 TV로 지켜봤다.

佛 네티즌 절반 “16강 물건너 갔다”

프랑스 네티즌 상당수가 2006 독일월드컵축구에 출전중인 자국 대표팀이 조별리그가 끝나는 23일께 파리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20일(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인터넷 포털사이트 ‘야후 프랑스’에 따르면 이 사이트가 한국과 월드컵 본선 G조 조별리그 2차전 직후 “독일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을 넘는 숫자가 ‘퇴 블레’의 16강 토너먼트 합류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전체 2만5천92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50.9%)인 1만3천203명은 ‘(조별리그가 끝나는) 6월23일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7.9 공무원 남경철직공인증개사, 전담강사 6.26, 전남고시학원

미용그룹 세종에서 유능한 매니저를 모십니다. 미용그룹 세종 10621223-1088

42인치 POP 박람회 TV 설치, 7.31 행정고시학원

공인증개사 전문학원, 전국 수석 합격자 배출,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전국 1위 합격률 1위